



배우고 믿고 나누며 '괄목성장'

경기 안양 · 군포 · 과천

안양 한마음선원 중심 수행·생활불교 정착

군포 정각사, 교육·신행분위기 조성 '구슬땀'

과천 보광사 사격 갖추고 포교 본격화 채비

안양 안양의 각급 기관장들은 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말에서 '안양(安養)이라는 지명은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말로, 극락세계를 뜻하는 '안양국'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곤 한다. 안양이 그만큼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명유래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안양 불교는 그 이름만큼이나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사찰들의 포교활동도 그렇고 각급 신행단체들의 수행도 남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사암연합회도 활성화돼 있고, 사암련과 사찰들의 복지활동은 지역민들도 인정할 정도로 질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안양 불교는 생활불교와 복지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 그만큼 안양은 불심이 깊고 불교가 안정돼 있다.

안양 불교가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중심에는 안양 스님들 모두가 예외없이 첫손가락으로 꼽는 한마음선원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도심사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행·포교 도량 한마음선원은 1971년 개원 이래 안양 불교를 잘 이끌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수행과 수행체제로 '생활불교'를 정착시킨 한마음선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신도회·청년회·학생회·어린이회 활동을 통해 지역신행과 불자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불우학생 및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장학·복지사업으로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혔다.

지장선원도 도심포교당으로서 괄목할만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9년 안양불교대학을 개설한 지장선원은 지금까지 1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공부하는 신행종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포교 및 복지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안양불교신문'을 창간, 문서포교에도 발을 내디뎠다.

보광사는 복지·교육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노인무료급식 등으로 지역복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을 통해 불교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도광사와 서광사는 복지 및 환경포교활동에서 두드러진다. 도광사는 양로원 보육원 등에서의 자원봉사 및 불우이웃 후원활동과 함께 20여 년 간 교도소 및 경찰 포교에 주력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서광사 역시 안양교도소 안양경찰서 등 군경 포교에 열심이다.

이밖에도 안홍사는 불교학교로, 보리사는 불교유치원으로, 명해암과 염불암은 기도처로, 삼막사는 전통사찰로서 나름대로 색깔을 갖고 활동 중이다. 사찰들의 활발한 포교활동은 사암연합회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 80여 사찰 중 40여 사찰이 활동 중인 안양사암련은 각급 단체의 불자회 창립을 지원 하는 한편 복지활동도 벌이고 있다.

군포 인구 27만에 사찰 수는 10여 곳으로 군포 불교는 예초한 편이다. 게다가 320여개에 되는 교회를 틀바구니에 끼여 있어 이래저래 군포 불교는 어깨를 펴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안양 지장선원이 운영하는 안양불교대학의 수업 모습. 안양불교는 신도교육을 통해 생활불교를 정착시켰다.

군다나 10개 사찰의 연합체인 사암연합회마저 유명무실해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사찰 수가 절대 부족인 점도 있지만, 도심포교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사찰들 스스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각사의 활동은 눈물겹다. 산본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정각사는 화엄불교대학을 통해 불자교육에 나서는 한편, 지역법회와 자원봉사회를 통해 불자들의 수행을 돕고 있다. 또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열고 있으며, 장학사업과 결식아동돌봄 등 복지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복지사업을 벌이기 위해 지역복지기관 수탁을 위한 사단법인을 준비 중이다.

법해사 정해사 민수사 등 도심포교당과 전통사찰인 수리사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색깔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서 있는 과천. 과천의 사찰은 여섯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존에 있던 3개 사찰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거나 아예 사찰을 다른 용도로 매각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찰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땅값이 비싸고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이 많아서 사찰이 들어설 여지도 없다.

다만 최근 들어 사격을 갖춘 보광사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포교에 뛰어든 체비를 하고 있다. 과천종합청사 불자회와 유대관계를 갖고 불교계 확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과천 불교가 지금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울 등지로 빠져나가는 지역 불자들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 이와 함께 연주암이 제 역할을 하고, 보광사가 기획하고 있는 수행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대학원대학교 설립 등 교육 앞장

덕해 스님 (안양 보광사 주지 ·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이사장)



교육과 복지 불사에 남다른 열정을 세우고 중생교화에 진력해 온 덕해 스님. 스님의 이력에 그 삶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1968년 보광사를 창건하고 이후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을 설립, 지역포교에 앞장섰다. 1990년부터는 보문학원 이사장으로서 불자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2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불교학 및 인문학 발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2000년부터는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운영을 맡아 지역복지에도 기여하면서 스님들과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여자 중 ·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인수해서 본격적인 미래불자 양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성·열정'으로 국내외 포교 지원

혜원스님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한마음선원의 수행(신행)과 포교 시스템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듯이 전국 최고, 문제는 어떤 자세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가이다.

혜원 스님은 그것을 말미 아닌 실천으로 보여준다. 바로 '정성과 열정'. 불자들에게는 작은 부분

까지 배려해 줄 정도로 더없이 자상하고, 일에 있어서는 몸을 싣지 않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 이런 자세로 불자들이 지역민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포교라고 안양 불자들은 말한다.

신행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불교 신행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포교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에 위치한 15개 지원과 미국 캐나다 등 10여개 해외지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다.



지역불교 발전위해 동분서주

일광 스님 (안양 서광사 주지 · 안양시사암연합회장)



일광 스님은 사법 신분으로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법당(호국귀의사)을 만들었을 정도로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다. 안양에서 20년 동안 포교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년 전부터 안양사암련 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연말, 자비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안양의 70여 사찰을 직접 방문했을 정도.

새 법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교유치원을 통해 새싹불자를 길러내는 것이 꿈이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등 5개 대회에서 입상했을 정도로 붓씨에도 능하다.

재소자 교화 3차례 장관표창

도광 스님 (안양 도광사 주지 · 안양시사암련 부회장)



온화한 인품으로 안양불교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양사암련 부회장 도광 스님. 1985년 도광사를 창건한 이래 20년간 한결같이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다. 20년 간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으로 재소자 포

교를 벌여왔으며, 10년 넘게 안양경찰서 경성과 서울소년부심사원 종교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세 차례나 수상했다.

도광사가 위치해 있는 안양 5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맡아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가가는 포교'를 실천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포교 프로그램 다양화를 계획 중이다.

안양불교대학 졸업생 1천명 길러내

현호 스님 (안양 지장선원 주지)



현호 스님은 1999년 안양 도심 한복판에 지장선원을 열고 안양불교대학을 개설, 불자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1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안양 불교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행과 생활은 하나가 돼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소신이 확고하다. 35명의 초 · 중 · 고 · 대학생들을 유발상좌로 두고, 자체어린이보호 집을 만드는 등 어린이 · 학생 포교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안양 31개 동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31명과 결연해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정각사'를 군포 포교 1번지로

정업 스님 (군포 정각사 주지 · 동국대 강사)

교육 · 수행 · 복지 · 어린이 · 청소년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쳐며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각사를 군포의 포교 1번지로 만들었다. 정업 스님은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포교방법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군포시청불자회와 군포경찰서불자회를 창립하는 등 군포 불교 발전에 기여했으며, 경기남부 지역 불자회 창립도 추진 중이다.

일본 동경대학에서 인도철학과 불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로,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 강사를 맡고 있다.

공무원 불자회 발전에 한 몫

송도근 (과천종합청사불자회 · 공무원불자연합회 부회장)



과천종합청사불자회는 건교부 · 복지부 · 농림부 · 환경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과천시청 등 6개 행정기관의 불자회가 모인 단체. 이 단체를 8년째 이끌고 있는 송도근 회장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회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신심이 두텁기로 소문난 송 회장은 회원들에게 경전을 직접 강의할 정도로 불교이론에도 해박하다.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을 맡아 공무원 불자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탄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종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양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수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限원칙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장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선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수양원으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음식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항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